

EBS 연계 출제 Point 56개

1.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 서술어 중에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음
 - 세 자리 서술어 : 넣다, 주다, 삼다 등
 -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 : 같다, 맞서다, 다르다 등

2. 경음화(된소리되기)
 - :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받침 뒤의 경음화가 일어남.
 - Ex. 발달[발발], 질서[질씨], 물질[물질]

3. 음절
 - :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 모음, ㉡ 자음 + 모음, ㉢ 모음 + 자음, ㉣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꽃[꼇]'은 ㉢, '잎[입]'은 ㉣에 속한다.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 결과 [꼇닙]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꽃잎'의 두 번째 음절은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에서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시된 <보기>의 설명은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을 크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초성과 중성에 자음이 오는가, 중성에 어떤 모음이 오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 '착하니'는 '착'의 'ㄱ'과 '하'의 'ㅎ'이 축약되어 음운이 1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착하고'의 첫 번째 음절 '착[착]'이 [착]로 바뀌어 ㉢에서 ㉣로 음절 유형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집일'은 '일'에 'ㄴ'이 첨가되고 '집'의 'ㅂ'이 'ㅁ'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1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집일'의 두 번째 음절 '일[일]'이 [닐]로 바뀌어 ㉢에서 ㉣로 음절 유형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4. 서술격 조사 '이다'
 - :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하는 속성과, '이고', '이니', '이면', '이지' 따위로 '이-에'에 어미가 붙어 활용한다는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격 조사'라고 함.
 - [comment] 어미가 붙어 활용? 서술격 조사의 '이'는 어간!
 - [작년 수능특강] '사랑이다'의 형태소는 3개

5. 현재 시제의 사용
 - :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함.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
 - Ex.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등

6. 그 밖의 피동, 사동 표현
 - : 피동 표현은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또한 사동 표현은 접미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 Ex. 그는 잘 훈련받은 군인이다
 - Ex. 아버지께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셨다 등

7. 인용 표현 중 직접 인용
 - :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에 넣어 인용함. 직접 인용된 절에는 '(이)라고'가 쓰임.

8. 인용 표현 중 간접 인용
 - :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함.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서술어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간접 인용된 절에는 '고'가 쓰임.

9. 담화의 응집성
 - :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여러 지시 표현, 대응 표현, 접속 표현 등의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가리킴

10. 중세국어
 - :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음.

11. [중세국어] 이인칭 주어 의문문
 - :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이인칭 주어 의문문에 '-니다', '-르다' 등을 사용하였음
 - 네 겨집 그려 가던다 : 네가 아내를 길워하여 갔느냐?
 - 네 가 어니 뵙 올다 : 네가 가 어느 때 오겠느냐?

12. 최소 대립쌍
 - :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또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아야 하지요.
 - '소리'와 '오리'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리'는 4개의 음운 'ㅅ, ㄴ, ㄹ, ㅣ'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리'는 3개의 음운 'ㅇ, ㄹ, ㅣ'로 구성되어 있다.

13. 닫히다[다치다]
 - :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 [X]
 - '닫히다'는 '닫히다 → 다터다 → [다치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된 후 'ㅌ'이 'ㅣ'앞에서 'ㅊ'으로 교체되므로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ㅎ 탈락 vs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의 사례로는 ‘(물이) 끓는’을 들 수 있습니다. [X]
→ ‘ㅎ’ 탈락은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끓는’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은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기에 이 현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15. 앓- + -는 → [알른], 훑- + -는 → [훑른]

: 용언의 어간이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으로 끝날 때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앓는’과 ‘훑는’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ㄹ’과 ‘ㄴ’ 사이에서 ‘ㅎ’, ‘ㅌ’이 탈락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16. 올- + -는 → [우:는], 알- + -니 → [아:니]

: (다)를 통해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우는’과 ‘아니’에서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17. 살피+-어 → 살피[살피], 이기+-어라 → 이겨라[이겨라]

: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 ‘살피어’에서 ‘피’의 ‘ㅣ’가 반모음 ‘j’로, ‘이기어라’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8.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 ‘ㅌ’, ‘ㅌ’ 뒤의 ‘ㅎ’은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X]
→ ‘꽃 한’은 ‘꽃 한 → 한 → [꼬탄]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고, ‘술하다’는 ‘술하다 → 술하다 → [수타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ㅎ’이 축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9. 돕다(도와), 벗다(벗어), 잡다(잡아), 흐르다(흘러서), 이르다(이르러서), 일하다(일하여)

→ ‘돕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도와’가 된다. 이로 보아 ‘돕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말음인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w’로 변하는 ‘ㅂ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그리고 ‘흐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하면 ‘흘러서’가 된다. 이로 보아 ‘흐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끝음절 ‘ㄹ’이 ‘ㄹ’로 변하는 ‘ㄹ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ㅂ 불규칙 용언’이나 ‘ㄹ 불규칙 용언’은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이다.
→ 한편 ‘벗다’나 ‘잡다’는 어간에 자음이나 모음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둘 다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 [제시어]를 통해 ‘이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할 때 ‘이르러서’가 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르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또한 ‘일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일하여’가 된다. 이로 보아 ‘일하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어 불규칙 용언’이다.

20. 비자립적 어근

: 합성어 중에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도 있지만,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용언 어간+명사’, ‘용언 어간+용언 어간’, ‘비자립적 어근+명사’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도 있다.
→ ‘보슬비’는 비자립적 어근 ‘보슬’과 명사 ‘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21. (선생님에게 정답을) 되묻다

: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X]
→ ‘되묻다’에서 ‘되-’는 접두사로, ‘되묻다’가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2.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 두 개의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 ‘춥지 않다’는 ‘춥다’와 ‘않다’라는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23. (오빠가 학교에) 가 보다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 ‘가 보다’는 ‘가다’와 ‘보다’라는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24.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 보조사, 보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 ‘이것만이’에서 ‘만이’는 보조사 ‘만’과 보격 조사 ‘이’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25. 우리는 해외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 ‘해외로의’에서 ‘로의’는 부사격 조사 ‘로’와 관형격 조사 ‘의’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26. 그는 내 걱정을 기우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X]
→ ‘기우로밖에’에서 ‘로밖에’는 부사격 조사 ‘로’와 보조사 ‘밖에’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한글 맞춤법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

우선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기준으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를 들 수 있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Ex. ‘익숙하지 못하다’가 줄어든 ‘익숙지 못하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 아니면 ‘ㅎ’만 남는다. ‘ㅎ’이 남는 경우에는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Ex. ‘추진하도록’이 줄어든 ‘추진토록’, ‘청학건대’가 줄어든 ‘청학대’

한편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Ex.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줄어든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다만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부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Ex. ‘하여튼’은 부사이므로 ‘하영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면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은 부사가 아니므로 ‘이러튼’, ‘저러튼’으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28.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

: ‘웬’과 ‘다른’은 모두 형용사입니다. [X]

→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에서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다른’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29. 당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 ‘온’은 관형사이고, ‘같은’은 형용사입니다.

→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같은’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뜻을 가진 ‘같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30. 형의 진짜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

→ ‘형의 진짜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의 ‘진짜’는 명사이고,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의 ‘진짜’는 부사이다.

31.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의 ‘내일’은 명사이고,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의 ‘내일’은 부사이다.

32. 어느새 옷이 젖다

→ ‘어느새’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33. 여기서 라디오 방송이라도 듣고 있어 봐.

: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서술어에 본용언 ‘보다’가 연결된 두 개의 서술어이다. [X]

→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 ‘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서술어이다.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34. 빗갈 및 형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후략)

: ‘및’은 부사어이다.

→ 부사어 중에는 ‘및’처럼 그 부사어가 쓰인 문장과 앞 문장을 의미적 관계에 따라 접속해 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주는 부사어도 있다.

35.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6.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 및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기준 시점은 발화 시, 즉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제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라는 문장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와 ‘보는’ 행위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보다’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였으나 ‘달리다’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이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보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는 현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7.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생략)

: 잘못된 사동 표현

→ ‘제외시키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어지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제외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8. 소개소에서 회사에 두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시켰다.

: 잘못된 사동 표현

→ ‘소개시키다’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하다.’라는 뜻의 ‘소개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9. 부정문의 판단

: 국어에는 부정어와만 어울려 부정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전혀, 결코, 별로, 비단, 그다지, 도무지' 등이 그 예입니다. 가령 '그 지식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 / *비전문적이다.'에서 '전문적이지 않다'는 '전혀'와 잘 어울리고 있으나 '비전문적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지식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비전문적이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에서 '아니다'는 '비단'과 잘 어울리고 있는 것('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으로 보아,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40. 직시 표현

: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시 표현이 담긴 발화의 정확한 지시 대상은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 확정된다.

→ '나는 내일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41. [중세국어] 이제 저문 저그란 : 이제 어릴 적인

: '저그란'이 '적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으란'이 있었군

→ 중세 국어에는 현대국어의 '은'에 대응하는 보조사 '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2. 너는 외국 살 때 뭐 좋아했니?

→ '외국'은 명사이며,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을 수 있는 부사어
→ '뭐'는 대명사이며,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을 수 있는 목적어

43. 우리 아들 오늘 반장 됐어

→ '우리'는 대명사이며, 체언 '아들'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 '오늘'은 부사이며, 문장성분으로는 부사어
다. '오늘'은 명사, 부사로 품사 통용이 되는 말이다. '오늘의 날씨'처럼 조사가 붙는 경우는 명사로, '오늘 온다.'처럼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로 붙 수 있다.
→ '반장'은 명사이며,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

44. 다의어 : 다의어의 경우 여러 개의 반의어를 지닐 수 있다.

→ '좋다'의 반의어는 '(굴이) 싫다'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쁘다'가 될 수도 있으며, '(비위가) 약하다'가 될 수도 있다.
→ '독하다'가 '맛, 냄새 따위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고 자극적이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순하다'일 수 있고, '의지가 강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약하다'일 수 있다.
→ '서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앉다'일 수 있고,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무더지다'일 수 있다.

→ '열다'가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닫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다물다'일 수 있다.

→ '벗다'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의 의미를 지니는 '입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고,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밟아 깨다.'의 의미를 지니는 '신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다.

45. 맞받이[만빠지] :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절이 두 개 있다.

→ '맞받이[만빠지]'에서 '맞'의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은 파열음 잇몸소리 'ㄷ'으로 바뀌었다. 또한 '받'의 파열음 잇몸소리 'ㄷ'은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바뀌었다.

46. 자음군 단순화와 다른 음운 현상이 중복되어 일어날 때

: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어떤 음운 현상과 함께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읽고', '넓다'에서 'ㄹ'은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지 않는데도 결과적으로 [일고], [널따]와 같이 받음 된다. 이는 'ㄹ, ㅍ'의 'ㄱ, ㅂ' 뒤에서 먼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ㄱ, ㅂ'이 탈락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7. 함의 관계

: 우리가 어떤 문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사실로 인정되는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정우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라는 문장에는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의 의미 속에 포함된 다른 의미를 함의라고 합니다. 함의는 아주 일반적인 언어적 속성이기 때문에 함의를 갖는 문장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 Ex. 저것은 펭귄이다. — 저것은 새이다.
: '펭귄'이 '새'보다 하위어이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하게 된다.
→ 우승에 실패했다. — 우승에 성공하지 못했다.
: '실패'와 '성공'이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는 것이다.
→ 진호는 연지의 남편이다. — 연지는 진호의 아내이다.
: '남편'과 '아내'가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게 된다.

48. 땀받이 [땀바지]

: 'ㄷ'이 'ㅈ'으로 교체된 후 'ㅇ'이 탈락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게 되는군
→ 'ㄷ'이 'ㅈ'으로 교체되는 음운변동이 일어나고 'ㅇ'이 탈락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체만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다.

49. 최소 대립쌍 : 김[김] - 곱[곱:] / 연[연] - 원[원]
 사과[사과] - 사과(謝過)[사:과]
 → ‘김’과 ‘곱’은 ‘ㅣ’와 ‘ㅍ’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음의 길이도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과 ‘원’은 반모음 ‘j’와 반모음 ‘w’만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 ‘사과’와 ‘사과’는 음의 길이만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50. 이번 학기 우리 반 반장으로는 네가 좋겠구나!
 : 하나의 선어말 어미와 두 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군 [X]
 → ‘ 좋겠구나’는 형용사 어간 ‘ 좋-’에 선어말 어미 ‘-겠-’과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따라서 하나의 선어말 어미와 두 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1. 치료를 마친 동생은 곧바로 고향으로 가 버렸다.
 : 선어말 어미나 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군 [X]
 → ‘가’는 동사 어간 ‘가-’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나 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2. 직접 구성 요소
 :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는데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 없으면 합성어가 된다. 여기서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를 말한다.
 → Ex. ‘손잡다’의 어간 ‘손잡-’은 ‘손’과 ‘잡-’으로 나뉘는데 이때 ‘손’과 ‘잡-’이 직접 구성 요소이다. ‘손잡다’는 어간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없으므로 합성어로 분류된다. 반면에 ‘잡히다’는 어간 ‘잡히-’가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뉘어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 ‘-히-’가 분석되므로 파생어가 되는 것이다.

53. 이중 피동
 :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복 사용하여 피동사를 만드는 것을 이중 피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중 피동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규범적으로는 대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
 <얼핏 보면 이중 피동처럼 보이는 것들>
 → 순바닥으로는 저 눈부신 햇갈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
 : ‘가려다’는 피동사가 아니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 그 도난품은 범인들에 의해 은밀한 장소에 숨겨졌다.
 : ‘숨기다’가 피동사가 아니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54. 예요 vs 어요
 :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에요’와 ‘-어요’가 ‘이다’의 어간 ‘이-’나 ‘아니다’의 어간 ‘아니-’ 뒤에 나올 때, 그 발음과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 앞에 모음이 있으면 대개 ‘ㅣ’ 모음이 반모음 ‘j’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그럴 때에는 그 발음에 따라 ‘이에요’와 ‘이어요’를 각각 ‘에요’와 ‘여요’로 줄여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앞에 자음이 있으면 ‘이에요’와 ‘이어요’가 각각 ‘에요’와 ‘여요’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줄여 적을 수 없다. 한편 ‘아니-’가 ‘-에요’, ‘-어요’와 결합할 때에는 줄이지 않은 표기와 줄인 표기를 모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X]
 : ‘아니-+ -에요’는 ‘아니예요’가 되고, 이것의 준말은 ‘아네요’이다. ‘아니-+ -어요’는 ‘아니어요’가 되고, 이것의 준말은 ‘아녀요’이다.
 → 이건 영수의 불펜이어요.
 : ‘불펜+이-+ -에요’는 ‘불펜이예요’가 되는데, ‘불펜’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불펜예요’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적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불펜+이-+ -어요’는 ‘불펜이어요’가 되지만, ‘불펜’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불펜여요’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적을 수 없다.
 → 서울은 한국의 수도어요.
 : ‘수도+이-+ -에요’는 ‘수도이예요’가 되고, 이것의 준말은 ‘수도예요’이다. ‘수도+이-+ -어요’는 ‘수도이어요’가 되고, 이것의 준말은 ‘수도여요’이다.
 → 이 동물은 코끼리이어요.
 : ‘코끼리+이-+ -에요’는 ‘코끼리이예요’가 되고, ‘코끼리+이-+ -어요’는 ‘코끼리이어요’가 된다. 이 둘은 줄여서 각각 ‘코끼리예요’, ‘코끼리여요’로 되는 경우가 많다.
 → 그분은 저의 형이 아녀요.
 : ‘아니-+ -어요’는 ‘아니어요’가 되고, 그것의 준말은 ‘아녀요’이다.

55. 선생님,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는 자기를 낮추는 ‘저’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줄어든 말이다.
 → ‘제 의견을’에서 ‘제’는 1인칭 대명사 ‘저’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인 ‘저의’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저’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줄어든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56.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이 아끼는 책을 보내 주셨대
 : ‘당신’은 3인칭 대명사인 재귀 대명사이다.
 →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이 아끼는’에서 ‘당신’은 ‘교장 선생님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따라서 ‘당신’이 3인칭 대명사인 재귀 대명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